

*** 원불교 교리의 현대적 건축 구현 방법 연구

A Research on the Architectural Embodiment Design-Method of Won-Buddhism Doctrine

조 한* / Joh, Hahn
김원석** / Kim, Won-Suk

Abstract

Each human era has its own unique architectural embodiment of religious philosophy at the time. Though, many modern religions have developed their own architectural expression based upon each own religious doctrine, one of the main native Korean religions, Won-Buddhism, has not developed its own proper architectural expression yet. So,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probable architectural design methods for Won-Buddhism doctrines. 1) The history of Won-Buddhism architecture is comparatively analyzed to find the architectural trend of Won-Buddhism. 2) Modern religious architectural cases are analysed and compared between plastic expression and spatial expression types. 3) Won-Buddhism doctrines are analysed to find key characteristics to be used as architectural design concepts and method. Based upon analys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Won-Buddhism doctrine are synchronicity, circularity, and liminality, which are found to be similar to the trans-boundary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the future, more study on these characteristics and how they are materialized, the probable design methodology for Won-Buddhism Doctrines can be proposed.

키워드 : 원불교, 종교건축, 상주성, 순환성, 경계성, 교리적 디자인 방법론
Keywords : Won-Buddhism, Religious Architecture, Synchronicity, Liminal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류 문명의 건축의 역사는 종교건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종교 유적에서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에 이르기 까지 각 시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건축적 결정체로서의 종교 건축은, 작게는 건축이 대변하는 종교를, 크게는 관련 문명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개념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교건축물이 단지 특정 시대의 기술적 측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문명의 사상과 철학을 표현하는 최고의 결정체로 사용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래 들어 종교적 건축은 실용적인 디자인 경향으로 인해 각 종교의 사상과 철학을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종교 집회 등 기능적 역할의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4대 종교의 하나이며 민족종교인 원불교의 교리에 바탕을 둔 현대적 종교건축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연차적 연구의 선행 연구이다. 원불교는 그 민족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축 관련 연구가 미진하여 기독교와 불교 등 타 종교와 비교하여 건축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에 원불교 교리에 근거한 다양한 건축적 구현 방법 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원불교에 맞는 현대적 건축 디자인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종교 건축은 각 시대의 종교관, 세계관, 철학과 미학을 총체적으로 집성한 건축적 결정체이다. 본 연구는 먼저 원불교의 역사적 배경과 시기별 원불교 교당 건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기별 원불교 교당의 건축 경향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 원불교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종교 건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각 종교별 교리에 근거한 건축적 구현 방법을 파악한다. 세 번째로 건축적으로 연계 가능한 원불교 교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 정회원,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전공 석사과정

*** 이 논문은 2007년 홍익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교건축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발견된 종교별 교리적 건축 구현방법과 원불교 교리적 특성과 연계하여 원불교에 맞는 건축적 구현방법을 찾고자 한다.

2. 원불교 배경 및 건축 특성 비교

2.1. 원불교 역사적 배경

원불교는 일제강점기 중에 민족주의적 정신을 기반으로 1916년 4월 소태산(小太山) 박중빈(朴重彬: 1891~1943)이 창시한 민족종교다. 원불교는 믿음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신앙 뿐 아니라, 자신의 수양과 실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행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교이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온 역사적 흐름 속에서 원불교의 창시는 독특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초기 일제의 민족주의 정신의 억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교 연구회' 명칭으로 시작하여 해방 후에야 1948년 '원불교'라는 정식 교명을 사용하게 된다.

2.2. 원불교 건축 시기별 특성 비교

원불교 교당은 1918년 첫 교당인 옥녀봉 구간도실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 교당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60여 교당이 설립되어 있다. 원불교 교당의 건축 시기 구분은 원불교의 역사적 발전 단계와 건축적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원불교 개교에서 광복까지의 기초 확립기(1918~1945), 광복 후 근대화의 기간을 교세 확장기(1946~1979), 그리고 80년대 이후 기간을 교단 정착기(1980~현재)로 나뉘보았다.

<표 1> 원불교 기초 확립기(1918~1945) 건축 특성

특징	사례	
초기 초기형식		
	영산원(1918)	
일제 강점기 영향으로 일본식 근대양식형 (수계 교당과 같은 일한 절충형 교당도 등장)		
	마령교당(1929)	공회당(1929)
수계교당 경우 최초로 외부에 일원상 봉안		
	영산대각전(1936)	수계교당(1942)
개량 한옥형		
	좌포교당(1942)	

원불교 기초 확립기(1918~1945)는 일제 강점기로 원불교 개교 이후 원불교적 건축 표현 방법보다는 범회등 기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건축의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에 특별한 건축적 표현 방식은 발견되지 않고, 당시의 일반적인 건물인 초가나, 한옥, 일본식 건축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개교 초기에는 영산원(1918)과 같은 초가형식이나 전통한옥의 형태의 교당이 주류였다. 또한 일본식 건축의 영향을 받은 마령교당(1929)과 일한(日韓) 절충형 건물인 수계교당(1942) 등 근대양식적인 건물도 나타났다.<표 1>

광복 후 교세 확장기(1946~1979)에는 콘크리트와 유리의 새로운 건축 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건축적 표현의 전기를 맞아 근대건축형 교당이 등장하면서 교회의 침탑과 바실리카식 종단면 평면구성을 모방한 교회형 교당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민족종교 원불교의 한국성 표현에 맞춰 전통건축의 양식인 기와지붕과 통기등을 철근콘크리트와 조적조로 표현한 절충형 교당들도 많이 등장하며, 특히 교회형과 전통형을 결합한 절충형 교당들이 등장했다. 예외적으로 원형 평면과 돔을 사용하여 원불교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한 전주교당(1962)도 있었다. 그러나 이시기의 주된 원불교의 건축적 표현은 일원상이 포함된 상징탑과 아치형의 아케이드 입면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평면구성에서도 교회형 평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 2>

<표 2> 원불교 교세 확장기(1946~1979) 건축 특성

특징	사례		
교회형- 상징탑 및 바실리카식 (종방향) 평면			
	관촌교당	대신교당(1957)	
전통형- 기와지붕 + 통기등			
	울산교당(1970)	고성교당(1968)	
절충형- 교회형+전통형 (상징탑+기와+통기등)			
	부산진교당(1955)	구례교당(1969)	
조형적 표현 - 일원상 평/입면 및 외부 형태			
	전주교당(1962)	마산교당(1976)	

교단 정착기(1980~현재)는 교세 확장기에 이어 1980년대에는 일원상이 봉안된 상징탑과 바실리카식 평면의 교회형과 기와지붕과 통기등 등 요소로 구성된 전통형을 결합한 절충형 교당이 많이 등장했다. 1990년대부터는 새로운 원불교적 건축 표현 방법을 찾고자 하면서, 원불교의 일원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강남교당(1986)과 경주교당(1986)과 같이 일원상의 등그런 느낌을 조형적으로 활용한 경우와, 수직 상징탑과 일원상의 입면적 표현을 결합한 평택교당(1999) 같은 다양한 조형적 시도가 나타났으나 내부에서는 교회형 평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의 안암교당(2008)은 외부에 원형요소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내부에도 원형의 요소를 도입하여 원불교적 느낌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했다.<표 3>

<표 3> 원불교 교단 정착기(1980~현재) 건축 특성

특징	사례		
절충형-교회형+전통형 (상징탑+기와+통기둥)			
조형적 표현-일원상 평/입면 및 외부 형태			
조형적 표현-외부 및 내부 공간에 원형 요소 도입			
	안암교당(2008)		

3. 종교 건축 사례 비교분석

3.1. 조형적 표현 사례

근대 이후 표현주의적 건축 영향을 받아 특정 종교의 상징을 건축적 형태 및 공간으로 표현하는 경향으로 기독교의 경우 과거 기독교 상징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형상을 평면에 주로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경우, 성서에 주로 등장하는 특정 사물 또는 이야기를 형상화하는 사례가 많다. 노아의 방주, 동방의 별, 기도하는 손, 물고기 및 성패의 형태 등이 대표적인 조형적 표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불교의 경우의 만다라의 형상과 불교 및 힌두교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수미산(須彌山)의 형상을 불교 법당과 사찰의 배치에 사용해 왔고, 연꽃과 같은 상징물도 조형적 표현의 근원이다. 원불교의 경우, 일원상의 형태를 따른 평면과 입면적인 적용이 많으며,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 일원상의 등그런 느낌을 내외부 조형적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종교적 상징물의 직설적 조형적 표현은 주로 건물 외관 또는 외부에 한정되는 경향이 많아, 종교의 특성 또는 교리를 공간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인다.<표 4>

<표 4> 종교별 조형적 표현 사례 비교

종교	종교적 모티프	적용 방법	사례
기독교	노아의 방주	형상 평면	 산성교회, 서울(임금주) 배른성당, 제천
		형상	 경동성당, 서울(김수근) 불광동 성당, 서울(김수근)
기독교	물고기	평면	 초당성당, 강릉(김영삼) 산성교회, 서울(임금주)
		형상 평면	 Notre-Dame Church, Paris, France(Architecture Studio)
불교	연꽃	형상	
	만다라	평면	
원불교	일원상	형상 입면 평면	 중앙총부, 울산 안암교당, 안암(김인철)

3.2. 공간적 구현 사례

근래 들어 전이공간, 수공간, 빛, 자연요소 유입 등 다양한 건축 공간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해당 종교의 교리적 체함에 초점을 맞춘 종교 건축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편적으로 종교적 상징을 표현하기 보다는 종교적 교리를 전반적인 건축개념화 하거나, 직설적 종교 상징물 없이 종교적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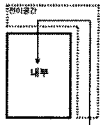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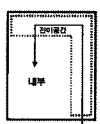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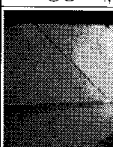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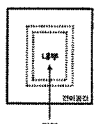


(1) 전이 공간

종교 건축은 각 종교에 있어 성(聖)과 속(俗)을 매개하는 공간으로써 인간과 신 또는 인간과 자연 또는 인간과 우주적 진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의 성계(聖界)가 땅에 내려온 성소(聖所)가 된다. 불교와 힌두교의 경우 불당을 포함한 사찰은 우주적 진리의 건축적 구현이 된다.

각 종교시설에 있어 주 신앙 공간 내에서의 종교적 전이 또는 전환현상 뿐 아니라, 공간적인 진입부도 전이공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독교의 경우 특히 과거 회교문명과의 전쟁에서 성지 예루살렘을 잃음으로 인해 연례적 종교 순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 하게 종교시설 내에 순례적 공간을 포함하게 되고, 이는 이후 적극적인 전이공간을 발전하게 된다.

불교의 경우 교리적으로 수행과 고행의 과정 자체가 깨달음의 중요한 과정인 것과 함께, 수미산과 함께 불교 우주관의 표현인 만다라의 공간 구성을 바탕으로 가람 배치를 함에 있어,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해탈문의 단계적 전이공간을 통해서만 본당으로 접근이 가능했다. 이는 진입의 공간이 전이 공간으로써 단계적 수행을 의미한다.<표 5>

<표 5> 종교적 전이공간 사례 및 공간 유형

공간유형	사례	
 <p>외부 전이공간 이용한 성속분리 및 순례적 공간</p>	 <p>경동교회, 서울(김수근)</p>	 <p>초당성당, 강릉(김영삼)</p>
 <p>내부전이공간 이용한 성속분리 및 순례적 공간</p>	 <p>강정교회, 제주도(김재관)</p>	 <p>부천성만교회, 부천(김재관)</p>
 <p>환상형 전이공간을 이용한 성속분리</p>	 <p>Church of Sacred Heart, Munich Germany(Altmann S. Wappne)</p>	 <p>Chaple of Reconciliation, Berlin Germany(Reitermann & Sassenrot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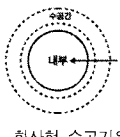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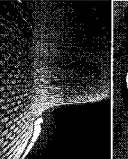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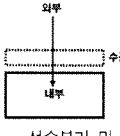


(2) 수공간

인류 역사상 수많은 문명들은 물에 다양한 신성한 의미를 부

여해왔다. 이는 물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상징성 때문이다. 불교 및 힌두교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수미산(須彌山)은 세속과 극락의 경계를 물로 가득찬 호수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물의 순환적 특성은 불교의 윤회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에 많이 사용되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레테(Letne)의 강을 포함한 5개의 강을 두어, 물이 성(聖)과 속(俗)을 분리하면서 또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독교의 경우 창세기에 태초의 생명이 물에서 창조되었고, 침례의식에서는 물의 순수성을 통해 신의 세계로의 입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물의 이러한 원초적 생명력과 순수성, 성과 속의 분리 및 매개 등은 건축 공간에서의 종교적 전환에 많이 사용되어왔다.<표 6>

<표 6> 종교적 수공간 사례 및 공간 유형

공간 유형	사례	
 <p>환상형 수공간을 이용한 성속분리 및 매개적 연결</p>	 <p>MIT Chapel, Cambridge US(Eero Saarinen)</p>	 <p>Water Temple, Awaji Island Japan(Tadao Ando)</p>
 <p>성속분리 및 매개적 역할</p>	 <p>Chapel of St. Ignatius, Seattle, US (Steven Holl)</p>	 <p>Leaf Temple, Kobuchizawa Japan(Kein Dytham)</p>

(3) 빛

루이스 칸(Louis Kahn)은 그의 '침묵과 빛'의 개념에서 빛이 없이는 공간이 존재 할 수 없으면, 특히 빛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Spiritual Quality)을 증시하여 빛을 통해 공간에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신성한 매개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건축 디자인에 있어 빛은 주된 건축 디자인요소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특히 빛은 종교 건축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적 상징의 표현과 종교적 체험을 위해 많이 사용된 건축 요소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빛)이 신과 동격 시 되었고, 특히 기독교 성서에는 하나님을 빛의 형태를 빌어 표현되었기에, 빛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의 강림 또는 예수의 재림을 표현하는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불교의 경우 빛은 해탈 또는 대각의 상징으로, 또는 부처님의 후광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빛 자체가 특정한 불교의 상징으로써 건축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7> 이외에도 빛의 변화는 공간에 동적 효과를 부가하여 보다 다양한 종교적 체험을 가능케 한다. 빛은 주 공간내의 신성의 표현 뿐 아니라 진입공간 내에서도 성과 속을 분리하는 종교적 전환의 역할을 한다.<표 8>

<표 7> 빛을 활용한 종교적 표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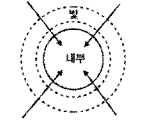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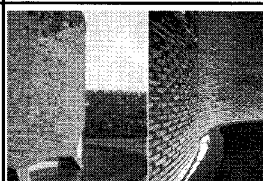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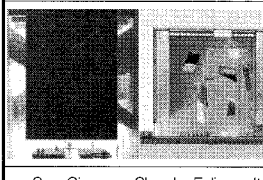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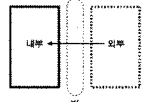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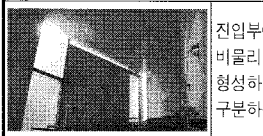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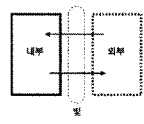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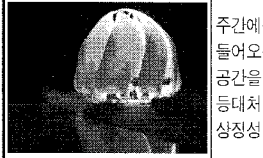
사례	표현 의도 및 유형
 MIT Chapel, Chambridge, US(Eero Saarinen)	상부 천장의 렌즈를 통해 유입되는 빛을 제단위에 매달려 있는 금속상들리에를 통해 물질화하여 신의 강림 또는 예수의 재림을 표현. 신앙 대상 표현
 Metropolitan Church, Liverpool Great Britain(Frederick Gibberd)	원형 평면을 돌아가며 전개되는 후진(後陣) -apse들은 각각의 독특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색상을 활용하여 각각 연계된 성인(Saint)와 신앙 프로그램을 표현. 교리 표현 빛과 색상 활용
 St. Ignatius Chapel, Seattle, US(Steven Holl)	천창/고창과 색상을 활용한 7개의 빛 공간을 각각의 예수회 신앙 프로그램과 연관하여 건축 공간 구성 성숙 분리의 외부 세계와 분리되는 신성한 분위기 연출
 Church of the Sacred Heart, Muchen Germany(Allmann S. Wappner)	4면의 반투명한 벽체를 통해 들어오는 산란 채광을 이용하여 외부(속세)세계와 분리되는 신성한 분위기 연출 성숙 분리의 외부 세계와 분리되는 신성한 분위기 연출
 Santo Volto, Turin, Italy(Mario Botta)	공업 지역의 형태를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한 라이트 스쿱(Light Scoop)형 채광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속세)세계와 분리되는 신성한 분위기 연출 성숙 분리의 외부 세계와 분리되는 신성한 분위기 연출

(4) 풍경/자연요소의 도입

자연풍경 및 다양한 자연요소의 종교건축에의 도입은 최근의 경향으로, 기독교의 경우 하나님을 창조한 인간을 포함한 자연과 전체 생태계를 직접 실내로 유입하여 구체적 종교 상징물을 탈피하여, 오감으로 신적 존재를 직접 체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신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생태학적 신학¹⁾과

1)작금의 환경위기가 기존 기독교 신학의 지배적 관계에 기인한 인간과 자연간의 지배자-피지배자 관계가 인간의 무절제한 환경착취의 원인이며, 이에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인간+자연)들이 새로운 친교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90년대 등장한 생태학적 신학 이론.

<표 8> 종교적 빛의 공간적 활용 사례 및 공간 유형

공간 유형	사례
 성숙 분리의 전환적 효과	 MIT Chapel, Chambridge, US(Eero Saarinen) 환형 수공간에 반사되어 벽체 하부 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산란광을 이용하여 외부(속세)와 분리되는 성스러운 공간 연출
	 San Giacomo Church, Foligno, Italy(Massimilian Fuksas) 2중 외피 사이로 빛을 유입하여 외부(속세)와 분리되는 성스러운 공간 연출
 진입부에 빛을 이용하여 비물리적 장막(Screen)을 형성하여 성숙의 공간을 구분하는 요소로 활용	 Church of the Light, Ibaraki, Japan(Tadao Ando) 진입부에 빛을 이용하여 비물리적 장막(Screen)을 형성하여 성숙의 공간을 구분하는 요소로 활용
 주간에는 반투명한 석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통해 성스러운 공간을 연출하고, 야간에는 등대처럼 외부에 종교적 상징성을 표현	 Bahi Temple, Santiago, Chile(Siamak Hariri) 주간에는 반투명한 석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통해 성스러운 공간을 연출하고, 야간에는 등대처럼 외부에 종교적 상징성을 표현

무관하지 않은데, 이는 종교적 체험과 아울러 생태적 개념을 종교적으로 수용하여 건축화하고자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액자 효과를 이용한 주변 풍경을 유입하는 투명한 종교건축을 들 수 있다. 불교의 경우에 원불교와 동일한 처치 불상 사사불공의 개념을 공유하는데, 이는 원불교와 유사한 일원론적 또는 전체론적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건축적 공간으로 구현 될 수 있다. Ando Tadao의 '물의 교회'의 경우, 물을 통해 자연의 일부분을 건축 공간 내에 유입하여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전이적/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표 9>

3.3. 건축 재료 물성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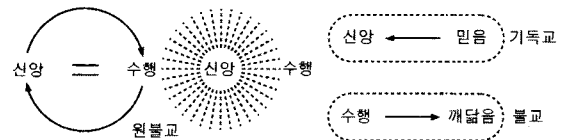
근래 들어 건축 재료의 물성을 이용한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종교의 역사와 연관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 종교의 원초적 느낌을 재료의 물성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백색 마감이 주로 종교의 순수성을 표현하고, 노출 콘크리트 등의 재료는 원초적 생명력을 또는 겸소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의미하기도 한다. 힌두 사원의 경우 라테라이트(Laterite)라는 지역의 붉은색 흙을 이용한 벽돌을 전통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 힌두교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표현하고 있다.<표 10>

<표 9> 종교적 풍경/자연요소 활용 사례 및 공간 유형

공간 유형	사례
	 Thorncrown Chapel, Eureka, Springs, US(Fay Jones)
	 White Chapel, Terra Haute, US(VOA + Hahn Joh)
액자 효과를 이용한 주변 자연동경의 도입	 Otaniemi Chapel, Helsinki, Finland(Kajja & Heikki Siren)
	 Church on the Water, Hokkaido, Japan(Tadao A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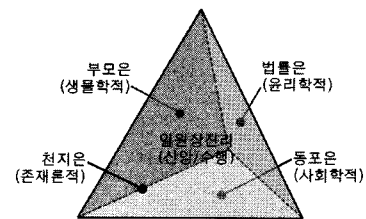
<표 10> 종교적 재질감 활용 사례

사례	표현
 Santa Mary Church, Marco de Canavezes Portugal(Alvaro Siza)	순백색의 벽을 통해 종교의 순수함 표현
 Holy Rosary Chapel, Louisiana, US(Victor F. Trahan)	백색의 콘크리트 질감을 이용하여 종교적 순수함 표현
 Brother Claus Field Chapel, Mechernich Germany(Peter Zumthor)	김계 그늘은 콘크리트 마감을 이용하여 원초적 종교의 느낌 표현
 Shiv Temple, Pune, India	지역의 전통적인 붉은 재료를 사용하여 힌두사원에 지역성과 역사성을 부여



<그림 1> 원불교와 기독교/불교 교리 특성 비교

일원상의 진리는 원불교 선 수행을 위한 우주와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근거가 되며, 이 진리의 본질은 은(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불교 선에 있어서 '일원과 같은 각자의 성품을 발견하여, 그 성품의 속성인 은(恩)을 실현해 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4)고 한다. 사은사상(四恩事想)은 일원상 진리의 근본인 은(恩)을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은(四恩)은 각각 천지은(天地恩), 부모은(父母恩), 동포은(同胞恩), 법률은(法律恩)5)으로 구성된다. 이는 원불교 신앙의 특성을 각각 존재론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윤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함과 동시에 각각의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원불교 사은사상

4. 원불교 교리적 특성과 건축적 연계

4.1. 원불교 교리적 특성

(1) 원불교 교리의 상즉적(相卽的)2) 특성

원불교는 우주의 근본원리인 일원상(一圓相, 원형의 형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종교다3). 원불교 교리의 중심인 일원상은 원불교적 우주관 및 세계관-신앙의 대상을 대변할 뿐 아니라, 이러한 우주적 진리에 이르는 길-수행의 표본-이 된다. 기독교가 믿음과 헌신의 신앙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타력적인 종교라면, 불교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력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원불교는 신앙과 수행을 평등시하는 '상즉적' 종교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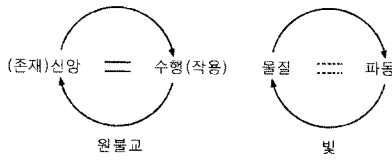
2) 불교용어로 두 가지 사물 또는 다른 현상이 그 본체에서는 서로 하나인 관계적 특성

3) 원불교 법무실, 원불교란?, 원광사, 2005, p.18

4) 김은중, 원불교 선의 원리와 수행법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p.77

5) 원불교 법무실, Ibid.,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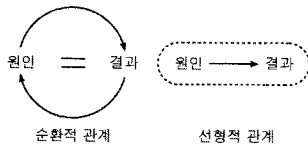
원불교 교리의 상즉적 특성은 현대과학, 특히 양자물리학에서의 발견과 많은 유사점들이 발견되는데, 일원상이 진리 그 자체이며 진리의 작용인 것은 신앙의 방법이 되면서 동시에 수행의 방법이 되는 것으로 현대물리학에서 물질과 파동의 양면성을 보이는 빛과, 관찰자의 존재유무가 관찰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대 과학의 발전이 새로운 패러다임적 전환에 큰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하면⁶⁾, 원불교 교리와 현대과학의 발견과 현대철학의 이론적 유사성을 추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그림 3>



<그림 3> 원불교와 현대물리학의 유사성 비교

(2) 원불교의 교리의 순환적(循環的) 특성

일원상으로 표현되는 진리는 일원상의 등그런 형태 자체로써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우주에 가득 차있는 진리로서 불생불멸(不生不滅)과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진리를 의미한다. 불생불명은 모든 사물과 그것이 속하는 우주에는 시작과 끝이 없으며 단지 그 상태나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인과응보는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고, 각자가 행한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에 인간 사고와 행동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불생불명과 인과응보의 개념은 불교의 순환적 우주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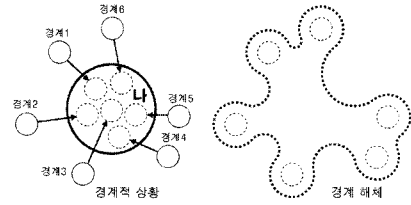


<그림 4> 원불교 교리의 순환적 특성

(3) 원불교의 교리의 경계적(境界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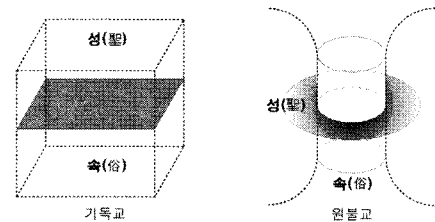
원불교 교리에 있어 경계는 원불교 수행의 중요한 개념이다.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 경계이다'라는 원불교 표어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모든 내 외부 현상이 경계가 되며, '나'라는 주체와 대비되는 모든 객체, 옳고 그름의 한계, 수행의 결과 등도 경계가 된다. 경계는 곧 수행의 순간이 되고, 방법이 되며,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불교에 있어 해탈은 주객일체(主客一體) 물심일여(物心一如)의 경지가 되는데 이는 '천만 경계 속에서 살아가면

서도 경계에 끌려가거나 물들지 않고 나와 경계를 다 잊어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경지⁷⁾를 의미한다.<그림 5>



<그림 5> 원불교 수행의 경계적 개념

일원상의 신앙적 측면의 처처불상 사사불공(處處佛像 事事佛供)⁸⁾ 개념과 수행적 측면의 무시선 무치선(無時禪 無處禪)⁹⁾ 개념은 원불교의 경계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전자가 이 세상 모든 사물과 현상에 부처가 있으니, 항상 부처를 공경하듯이 살아간다는 뜻이라면, 후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선 수행을 계속하는 생활 속의 종교로써 원불교를 의미한다. 이는 타 종교의 현세와 내세로 구분하는 세계관에서 드러나는 대립적 경계 개념과는 다른 원불교만의 조화적 경계 또는 상즉적 경계관과으로, 성과 속, 출가와 제가등 원불교 구성에 있어서도 조화적 경계가 원불교 교리의 중요한 특성이다.<그림 6>



<그림 6> 원불교와 기독교의 성/속 경계 개념 비교

4.2. 원불교 교리적 특성과 탈경계적 건축 경향 비교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불교 교리를 대표하는 일원상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며, 우주적 진리 자체이며 진리의 작용이라는 상즉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불생불멸/인과응보의 순환적 특성과 주객일체/물심일여의 경계적 특성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위의 다이어그램들에서 보여주듯이 일반적인 선형적이며 이분법적 경계가 아닌, 복합적이며 다원화된 경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현대건축의 탈경계적 특성과 많은 유사점 보인다.

이러한 현대 건축의 탈경계적 특성은 원불교 교리의 특성 중 특히 상즉적 특성-상이한 사물 또는 현상이 그 본체에서

6)Hahn Joh, The Ecological Paradigm in Architecture, Architecture Research, 8(1), 2006

7)정화사, 원불교전서-대종경제3수행품50, 원불교출판사, 1997

8)원불교 법무실, Ibid., p.60

9)원불교 법무실, Ibid., p.64

하나의 관계 입을 의미-과, 그러한 특성의 발현 또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계적 특성과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표 11>

<표 11> 현대 건축의 경계해체 또는 탈경계적 경향

관련 교리	교리적 특성	다이아그램	연계 건축요소	
신앙 존재	상주적		경계 + 공간	모호한 경계
수행 작용				프로그램연계
불생불명 인과응보	순환적		공간	프로그램연계
				매개적 요소
주객일체 물심일어	경계적		경계	변환적 외피 물성적 외피

많은 종교의 경우 '경계'의 의미는 성(聖)과 속(俗)의 단절적, 이분법적 관계를 의미하는데, 원불교는 이러한 성(聖)과 속(俗)의 단절적, 대립적, 이분법적 공간 구성 보다는, 참여자들이 상주적/순환적/경계적인 신앙과 수행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불교 일원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불교적 건축구현에 있어서 보다 복합적이며 다원화된 건축 공간 구성을 요구하며, 특히 경계 공간 또는 전이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4.3. 원불교 교리적 특성의 건축적 연계 가능성 비교

원불교 교당 건축의 시기별 분석에서 파악되었듯이 많은 교당 사례에 있어 조형적 표현 방법에 있어 기독교 교회를 많이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래 들어 교회 건축에 있어서도 조형적 경향을 탈피하고, 전이공간, 수공간, 빛, 자연풍경 및 요소 유입, 재료의 물성들을 활용한 다양한 종교적 교리의 구현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불교 건축이 과거의 표현 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원불교의 교리의 상주적/순환적/경계적 특성 등은 종교상징의 조형적 표현방식 보다는 공간적 구현 방식-전이공간/수공간/빛/자연요소+풍경도입/재질의 물성등-이 보다 적절함이 파악되었다. 특히 자연풍경 및 자연요소의 도입 사례는 일원론적/전체론적 개념의 구현으로 원불교적 특성과 많이 보인다.<표 12>

<표 12> 원불교 교리적 특성과 건축 공간 유형별 연계 가능성 비교분석

공간별	공간 구성	내용	원불교 교리적 특성		
			상주성	순환성	경계성
전이공간		특정 종교의 역사적 사실의 건축화(순례)	△	△	○
		성숙분리 및 종교체험의 전환적 특성	△	△	○
수공간		물의 성숙분리 및 매개적 특성 & 순환적/원초적 특성	○	○	○
			○	○	○
빛	신의 강림 및 예수 재림		기독교적 특성		
	교리적 특성의 색상 표현		△		
	신성한 분위기 연출		△		
		성숙분리 및 종교체험의 전환적 특성	△	△	○
			△	△	○
	내외부 경계의 빛을 이용한 소통적 특성	●	△	●	
자연풍경 & 자연요소 도입		자연풍경의 유입을 통한 일원론적/전체론적 공간구현	○	○	●
			○	○	●
		자연요소의 건축적 도입을 통한 매개적 연계	●	○	●
재료물성	순백색 벽 - 종교적 순수함		△		
	검게 그을린 콘크리트 - 원초적 종교성		△		

* 연계 가능성 정도: 제일 많음(●), 많음(○), 중간(△), 없음(X)

5. 결론

본 연구는 원불교의 교리에 바탕을 둔 현대적 종교건축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연차적 연구의 선행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을 도출했다.

1) 원불교 교리의 상즉적/순환적/경계적 특성은 종교적 상징의 조형적 표현 방식 보다는 공간적 구현 방식이 적절함이 파악되었다. 특히 상즉적/경계적 특성은 자연풍경/자연요소를 적용한 사례의 전체론적 개념과 유사하여, 추후 관련 사례들의 철학적 배경과 디자인 방법론의 비교 분석을 통해 원불교 교리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 디자인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원불교 교리의 상즉적 특성은 현대건축의 탈경계적 특성과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추후 먼저 탈경계적 현대건축의 철학적 배경을 연구하여 상즉적 특성을 파악한 후, 상즉적 특성의 디자인 방법론/적용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원불교 교리에 상즉적 특성을 적용한 건축 디자인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C.Humphrey/P.Vitebsky, 김정우 역, 신성한 건축, 창해 2005
2. 정진홍, M. Eliade - 종교와 신화, 살림, 2003
3. 김성민, 종교체험, 동명사, 2001
4. 김근식·이경희, 독일교회건축의 형태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4), 2004
5. 김경재, 건축구성과 빛의 상관성 및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6. 손광호, 현대건축 수공간의 현상학적 체험과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7. 손광호·김강섭, 종교건축 수공간의 현상학적 특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6), 2005
8. 김은중, 원불교 선의 원리와 수행법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9. 남효황, 원불교 교당 건축의 계획 설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10. 임숙재, 전이공간 개념을 적용한 연속적 시퀀스 체험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2004
11. 최순섭·김형준·전영훈·김광현, 현대건축의 타자적 경계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4), 2006
12. Hahn Joh, The Ecological Paradigm in Architecture, Architecture Research, 8(1), 2006
13. 원불교 홈페이지, 'http://www.won.or.kr/'
14. 원불교 법무실, 원불교란?, 원광사, 2005
15. 원불교 정화사, 원불교전서, 원불교 출판사, 1997
16. 이성택, 새 시대의 종교, 숲리, 2003
17. El Croquis 78+93+108, Steven Holl, 2003
18. El Croquis 44+58+Recent, Tadao Ando, 2000

<접수 : 2008. 8. 24>